

“광주의 십대들, 영웅 아닌 평범한 이들로 기억되길”

■ ‘제17회 광주여성영화제’ 최연소 이소희 감독

1980년과 오늘의 광주 연결 청소년 연대 조명

‘소년이 온다’서 시작된 관심…11월 13일 선포

“1980년 5월 광주의 청소년들은 영웅이 되려고 거리에 나선 게 아니에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었고,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지. 저는 이들을 영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제17회 광주여성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그 속에서 반짝이는 걸 보았지’를 선보일 이소희 감독(18)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거리로 나선 광주의 청소년들을 영화로 기록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 감독은 올해 광주여성영화제에 참가하는 감독 중 최연소다.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CGV 광주금남로에서 열리는 ‘메이드 인 광주’ 섹션을 통해 ‘애정아’(장예런 감독), ‘움직이는 교실’(양주연 감독)과 함께 작품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 ‘그 속에서 반짝이는 걸 보았지’는 5·18 민주화운동을 펴내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배재고 사건에서 출발해 1980년 광주의 십대들과 2024년 겨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장에 나선 청소년들을 연결해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용기와 연대의 의미를 되짚는다.

이 감독이 1980년 광주지역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였다. 작품 속 동화가 실

제 인물인 문재학 열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린 나이에 전남도청에 남았던 그의 마지막 순간을 오래 생각했다고 한다. 지난 2024년 겨울,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경험을 영화를 만드는 직접적인 발판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향할 때, 정작 자신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다는 후회감이 마음에 남아있다.

이 감독은 “1980년의 아이들은 총구 앞에서 거리로 섰는데, 저는 화면 너머로 응원봉을 든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광장에 나가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그 해답이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털어놨다.

작품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경청수 선생과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였다. 5·18 관련 연구자를 만나 당시 청소년들이 처했던 상황도 알았다. 그 과정에서 추모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겼다. 추모는 조용하고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마다 슬퍼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2024년 겨울 광장의 응원봉과 노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이 감독은 “중요한 것은 추모의 형식보다 기억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1980년의 십대와 2024년 겨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거리로 나선 광주의 청소년들을 영화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 속에서 반짝이는 걸 보았지’ 스틸 컷. 작품은 배재고 사건으로 시작해 1980년 광주의 십대들과 2024년 겨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장에 나선 청소년들을 연결한다.



여성영화제 참가 최연소 이소희 감독.

광장에 나선 십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작품 제목 ‘그 속에서 반짝이는 걸 보았지’에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고 보듬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았다. 그는 “주먹밥을 나누고 서로를 지키며 연대했던 순간들이 제게는 반짝임으로



다큐멘터리 ‘그 속에서 반짝이는 걸 보았지’ 스틸 컷.

다거왔다. 이 영화를 십대들이 많이 보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작은 빛을 발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역사를 다룬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데에는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한다. 이 감독은 “그 시간을 살아낸 분들과 기억을 이어온 분들 앞에 서는 일이기에 많이 떨린다”며 “광주에서 만난 분들

이 건네주신 이야기와 사진으로 완성한 영화인 만큼, 혼자가 아니라 광주와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묵직한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는 감독이지만, 영화와의 첫 만남은 외로웠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맞벌이 부모님과 잦은 전학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이 감독에게 영화는 친구이자 위로였다.

영화 제작은 배우 활동에서 출발했다. 독학으로 연기를 공부하며 극단과 단편영화, 광고 등에 참여하다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첫 영화 ‘기억’(2024)을 제작했다. 유튜브로 장비 사용법을 익히며 완성한 작품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 초청돼 수상하면서 감독의 꿈을 키웠다.

이후 가정폭력의 아픔을 다룬 극영화 ‘소리먹는 과일 이야기’,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동백꽃’, 세월호의 기억을 담은 ‘유영, 숨을 쉬다’ 등을 연출했다.

작품의 출발점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었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몰’에서 뉴미디어 팀장으로 활동하고, 노들장에 인야학 영화관에서 지원교사로 참여하며 영화와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임팩트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영화가 상영 이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은 “어린 감독이 아니라 그냥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다. 제 영화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작품 자체로 읽혔으면 한다”며 “카메라를 내려놓는 뒤에 또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감독, 영화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감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7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광주중앙CGV 광주금남로 등에서 열린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와 중국 산둥과의 아트교류…두번째 전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포럼, 기획초대 예술교류전

23일까지 전남대학교 융복합 기획전시실

(사) 한국문화예술포럼(회장 장경화)은 전남대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 원으로 한 기획초대예술교류전을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남대학교 융복합(대학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동시대의 시선, 이해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이번 교류전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 산둥농업대학교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중국 산둥농업대학 예술대학 전시관에서 열린 1차 교류전에 이은 두 번째 상호 교류 전시 프로젝트이며, 앞서 6월 중국 현지 전시 당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과 산둥농업대학 간 상호 교류

를 위한 협약식(MOU)이 함께 성료된 바 있다.

특히 교류전은 (사) 한국문화예술포럼 주관으로 양 지역과 상징적인 미술대학 간의 적극적 교류를 위한 교류작 역할을 하고 자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광주 전시는 산둥농업대학 교수를 비롯한 중국 산둥 지역 작가들이 함께 방문해 양 지역 예술가들의 공동 전시 및 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외교적 상황의 여파로



(사) 한국문화예술포럼은 기획초대예술교류전을 20일부터 23일까지 전남대학교 융복합 기획전시실에서 갖는다. 사진은 중국 산둥농업대학 예술대학 전시관에서 열린 1차 교류전 당시 기념 촬영 모습.

중국 작가단의 직접 참가가 어려워지면서, 아쉽게도 이번 전시는 전남대 교수 2명을 포함한 광주 지역 작가 10명의 작품으로 구성돼 진행되게 됐다.

비록 양국 정세로 인해 중국 작가들의 직접 현장 참여가 어려운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양 지역의 청년 예술

인 양성을 위한 두 지역 대표 미술대학 간 지속적 교류 역할을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에는 김지훈 김철우 노근진 문형선 박정용 엄기준 윤진학 장유호 정정진 주미희씨 등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여하며,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도예,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장르에 걸쳐 동시대 미술 작품이 출품됐다.

장경화 회장은 이번 교류전에 대해 “과거 백제시대와 남·북조 시대 선조들이 바닷길을 통해 지혜와 문화 교류를 이뤘듯, 극단의 불확실성과 변혁을 겪는 동시대에 양 지역의 예술적 소통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며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막식은 20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융복합(대학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성황리 열렸다. <전주=정채경 기자 rainidea@

토끼의 재치와 자라의 충정, 소리로 빛나는 한바탕

주소연 명창, 오늘 완창발표회

향산주소연관소리보존회 대표 주소연 명창이 ‘강산제 조상현바디 수궁가 완창 발표회’를 선보인다.

21일 오후 6시 광주 서구 빛고을극작전수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토끼지혜의 하루’를 주제로 수궁가에 담긴 삶의 지혜와 풍자, 해학을 전한다.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자 선정 2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수궁가는 병든 용왕의 치료에 필요한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나선 자라와 괴물을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는 토끼의 이야기로 담고 있다.

동물들의 모습을 빌려 인간 세상의 권



력과 욕망을 풍자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를 풀어낸다. 이번 무대에서는 강산제 조상현바디 수궁가를 완창한다.

강산제는 절제된 소리와 치밀한 음악적 구성, 깊이 있는 표현이 특징으로, 주소연 명창은 조상현 명창에게 배운 소리의 맥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공력을 쌓아왔다.

주소연 명창은 2004년 조상현 명창에게 사사한 이후 강산제 수궁가의 계승과 보급에 힘써왔다. 2008년 강산제 수궁가 완창발표회를 비롯해 2012년 소릿길 보성소리 강산제 수궁가 완창연구, 2015년 국립창극단 초청 완창 무대 등에 올랐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미술리뷰

올해 열일곱번째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22~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A·B·C홀, 아트광주)는 이른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광주비엔날레에서만 머물러 광주문화재단으로 갔다가, 광주미술협회로 갔다가, 한국미술협회와 아트광주집행위로 갔다가, 안다미로 갔다가 다시 광주문화재단으로 돌아오는 등 주권처의 잦은 변경이 이어져 왔다.

사실 아트페어는 철저하게 민간영역으로 넘어가야 맞지만 여전히 관 또는 산하기관의 우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다 명칭도 혼선이 지속돼 왔다.

광주국제아트페어로 불리지만 표기에서는 아트광주에 해당당도를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해왔다. 한때 전람회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상업미술시장이 아니라 대규모 전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상시 사무국 설치 절실

빛고을미술시장 ‘제17회 광주국제아트페어’

22일 개막 고질적 한계 해소 계기 마련해야

정도로 이해했던 듯 싶다. 상시 사무국 체제가 아니어서 연속성을 지속할 수도 없다. 올해 아트페어 역시 5개월 정도 준비한 것이니 준비기간이 매우 짧다 할 수 있다.

올해는 주관처인 광주문화재단의 수장이 1년 간 공석 상태다. 사무처장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전남문화재단과 통합을 이끌어낸 마당이다. 17회의 역사를 쌓았으면 타지역에서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아트페어가 진작 됐어야 맞다.

하지만 카야프나 아트부산 같은 대표적 아트페어의 명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올해 광주아트페어를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국내 82개 갤러리와 프랑스, 일본, 몽골, 중국,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독일, 조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해외 11개국 12개 갤러리를 합쳐 12개국 94개 갤러리, 113개 전시 부스, 작가 600여명 규모다. 이중 사우디아라비아는 10여년이 넘도록 명단에 없다가 이번에는 이집트 작가를 꾸려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트페어에는 총 11개국 94개 전시 부스, 600명 작가, 출품작 4400점 규모로 진행된 바 있다. 올해 아트페어



지난해 광주아트페어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들 모습.

부스는 갤러리 부스 99개와 특별전 부스 5개, 관람 편의를 위한 서비스 부스 9개 등이다. 지난해 111개 부스와 비슷하고, 참가국 등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올해 82명 규모의 조직위를 꾸리는데다 후원 기업·기관 또한 지난해 6곳에서 25곳으로 늘리는 등 당장 급속이

생성되지 않은 아트페어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후원액 역시 지난해 1200여만원에서 올해 3100여만원으로 늘어난 모양이다.

다만 예산이 아트페어의 체질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는 B사무처장

의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라는 발언에서 진하게 묻어난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상시 사무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5개월 정도 준비해서 아트페어를 여는 곳도 광주밖에 없다는 하소연에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엿보였다.

자체 예산의 규모가 통합특별시가 된 만큼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경기문화재단이 1400여억(문화누리 예산 비중 50% 정도)인데 비해 광주문화재단이 350여억과 전남문화재단이 370여억이었으니가 이를 단순히 합하면 720여억(문화누리 예산 비중 70% 정도)이 된다고 한다. 어쨌든 예산은 총합에 획기적 반영이 되지 않는 한 내년 광주아트페어의 대대적 변화 시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아직 아트페어 전이지만 ‘상시 사무국’ 운영을 가능할 예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는 아트페어가 1년 내내 준비를 해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서는 원년이 되기를 확신 고대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